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CDP)과 마음챙김 차이 연구*

심 희 준

이 상 희¹⁾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307명(남학생 101명, 여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지위(VISA)를 분류하고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CDP)과 마음챙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ISA척도의 6개 차원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가 6개의 지위로 유의미하게 분류되었으며, 각 진로정체감 지위는 Porfeli, Lee, Vondracek과 Weigold(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특성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의 결정성과 편안성에 따라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진로결정 상태유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결정-편안 유형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미결정-저불편 유형이 확인되었다. 셋째,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라 진로결정 상태유형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취지위는 유의미하게 결정-편안 유형이 많았으며, 탐색유예와 유실 지위는 미결정-고불편 유형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라 진로결정 프로파일(CDP)과 마음챙김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취, 탐색유예, 유실지위가 높은 수준의 결정성과 편안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마음챙김에서는 탐색유예 지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음챙김을 보였다. 따라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진로결정 프로파일과 마음챙김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정체감 각 지위에 다른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진로상담의 효과적인 개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진로정체감 지위(VISA), 진로결정 프로파일, 마음챙김, 탐색유예 지위

* 이 연구는 2014년 광운대학교 연구년과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비)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4S1A3A2044196).

1) 교신저자 :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부교수 (E-mail: sanglee@kw.ac.kr)

I.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나 종신고용이라는 개념 대신 직업 이직이나 실업,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진로발달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정체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rikson(1959)은 직업, 신념, 대인 영역에서의 전인적 발달을 통해 정체감이 확립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 초기 청년기에 주어진 발달과업의 완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Marcia(1980)는 Erikson의 정체감 개념을 구체화하였는데, 탐색과 관여 2개 차원을 도입하여 정체감을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4개 지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탐색 차원이란 정체감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이나 각종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도를 가리키고, 관여 차원은 탐색을 통해 포착된 대안이나 가능성들에 실제 몰입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Marcia(1980)가 제안한 정체감 모델은 각 지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정체감 발달 양상을 쉽게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후속연구들에 많이 이용되었지만(문경숙, 2009), 관여와 탐색 수준이 좀 더 세분화되어 측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절단점을 사용한 분류 방식에 대한 제한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Luyckx, Goossens, Soenens, Beyers, & Vansteenkiste, 2005; Meeus, 2011). 이에 최근 Porfeli 등(2011)은 Marcia의 탐색·관여모델에 관여의 재고려 차원을 추가한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델(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을 제안하였는데, 이들 세 차원은 다시 탐색은

깊은 탐색과 넓은 탐색으로, 관여는 관여형성과 관여 동일시로, 관여의 재고려 차원은 자기회의(career self-doubt)와 진로 유연성(career flexibility)으로 분류되어진다(Porfeli et al., 2011). Porfeli 등(2011)이 VISA를 사용하여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분류한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는 기존의 4개 지위 외에 2개가 추가되어 성취, 탐색유예, 유예, 유실, 혼미, 미분화의 6개 지위로 분류됨이 확인되었다.

관여의 재고려 차원을 사용하는 것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매우 유용한 데(Crocetti, Rubini, Luyckx, & Meeus, 2008), 유예지위를 적응적 유예와 부적응적 유예 지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Luyckx et al., 2008). 원래 유예지위는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발달 양상과 관련된 정체감 발달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다(Meeus, 2011). 그러나 Marcia의 모델로 도출된 유예지위는 Erikson이 언급한 유예 지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만들며(문경숙, 2009), 진로 발달 중에 있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분류된 탐색유예 지위는 성취지위와 유예지위 사이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진로정체감 유예에서 성취로 발달 중이거나, 진로정체감 성취에서 진로결정을 수정하기 위해 유예지위로 돌아가 재고려를 하는 개인을 반영하는 단계로, 개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발달적 정보를 제공해준다(Crocetti et al., 2008). 즉 이전에는 같은 유예지위로 분류되었던 개인을 그들

의 발달수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성취지위에 좀 더 가까운 적응적 유예의 특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상희와 오보영(2014)이 VISA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분류한 결과, Porfeli 등(2011)이 확인한 것처럼 6개 진로정체감 지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탐색유예 지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발전된 VISA 모형에 대한 한계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진로정체감이 불안이나, 신뢰감 같은 성격-정서의 복합물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Mauer & Gysbers, 1990) 여전히 인지적·행동적 측면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진로정체감은 적응과 정서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진정과 김성희(2012)는 인지·정서·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실제로 진로정체감에서 정서적 측면의 설명력이 인지·행동적 요인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척도 역시 진로정체감 발달과 관련된 일련의 심리과정에서의 인지·정서·행동 요인의 수준만을 보여줄 뿐, 진로정체감의 지위(status)나 지위에 따른 발달 양상의 특징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이러한 점들은 진로정체감의 연구에서 한 가지 척도만을 사용하는 것의 부족함을 보여주며, VISA 척도 역시 진로정체감 지위의 확인과 더불어 진로정체감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보완측정이 고려되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진로결정 프로파일(CDP: Career Decision Profile)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은 Jones와 Chenery(198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결정성(decidedness), 결정에 대한 편안성의 수준(comfort with level of decidedness), 미결정 이유(reasons for being undecided)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척도로서,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를 측정하는 동시에 정서적 측면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결정성은 진로에 대한 완전한 결정의 상태부터 완전한 미결정상태에 이르는 연속 변인이며, 진로편안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선택과 결정 상태에 대해 어떤 감정(편안-불편)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유차원은 진로미결정에 대해 개인이 제시하는 이유들로 자기 명료성,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진로선택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백지숙, 2007).

진로결정 프로파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몇 연구자들은 중심축을 진로결정성과 편안성 차원으로만 나눈 뒤, 보조축으로 이유 차원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Jones, 1989). 그 결과, 진로결정 상태 유형이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Wanberg와 Muchinsky(1992)도 진로결정 프로파일 척도 중 결정성과 편안성의 차원만을 사용하여 4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자신 있는 결정자(confident decided), 염려하는 결정자(concerned decided), 무심한 미결정자(indifferent undecided), 불안한 미결정자(anxious undecided)'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국내에서 백지숙(2007)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프로파일을 사용해 진로 결정과 상태에 따라 4개의 진로유형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진로 결정 프로파일의 결정성과 편안성 차원을 중심으로 진로결정 상태 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배중훈(2000)과 장선철(2004)은 진로 결정 여부와 진로에 대한 상태를 유형화하는 기존 도구들을 모두 검토한 후,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이 진로결정과 미결정 여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정서적 편안함과 불편함을 고려하고 그 이유까지를 포괄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유용한 유형분류 방식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장선철(2004)은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의 유형분류 방식 조합은 단지 진로의 결정과 미결정만이 아닌, 진로를 결정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유형과 진로 미결정 상태이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다소 특수한 유형까지 구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ISA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한 결정성과 편안성 차원을 중심으로 한 진로결정 상태유형을 분류하여 VISA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진로정체감에 따른 진로 결정이나 상태와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진로결정 상태의 가장 중요한 선별자이며(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양승권, 2004). 정체감 성취 지위의 청소년은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반면, 혼미지위의 청소년은 의존적이고 혼란스럽게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비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한다. 또한 유실 지위의 청소년은 부모 등 중요한 타인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진로의사 결정을 하며 유예 지위의 청소년은 특정한 패턴 없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ustein & Phillips, 1990). 따라서 진로정체감 성취 지위의 경우 높은 진로결정 상태를 가지고 결정한 진로에 대해 정서적으로 편안할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예 지위나 혼미지위의 경우 진로결정 상태가 낮고, 진로와 관련해 정서적으로 불편해질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진로상담에서 마음챙김(mindfulness)의 개념이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세계가 너무나 극적이고 빠르게 변화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불안과 직업 불확실성 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Jacobs & Blustein, 2008). 이러한 결과 몇몇 학자들은 앞으로의 진로상담 분야에서 가장 주시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가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와 그로 인한 정신건강 영역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불확실감과 불안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Herr, 2003; Savickas, 2003). 마음챙김이란 평가나 판단 없이 다만 지금-여기 또렷이 깨어 있는 것이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Brown, Ryan, & Creswell, 2007). 많은 연구들에서 마음챙김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마음챙김은 생애 만족감, 대인간 관계의 질을 높이고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Brown et al 2007; Glomb, Duffy, Bono, & Yang, 2011),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마음챙김이 사람들의 사건 지각 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Weinstein, Brown, & Ryan, 2009). 실제로 마음챙김은 고정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물이나 상황을 새롭게 다채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Carson & Langer, 2006), 현재 순간과 과정에 의식을 몰입할 수 있게 하여 인지적 유연함과 통찰을 증진시켜준다. 또 자기조절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을 증가시켜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 신체적 반응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pies, Barsalou, & Custers, 2012).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하여 학자들은 마음챙김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판단력(Kiken & Shook, 2011) 및 통찰적 문제 해결과 유의미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밝혀왔다(Ostafin & Kassman, 2012).

따라서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마음챙김이 높은 사람은 진로 발달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과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여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재 상황이나 대안과 가능성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진로 선택이나 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진로 진로정체감 발달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질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는 마음챙김이 현대 사회의 불확

실한 진로 및 직업 상황 그리고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에서의 진로결정에 직면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개인자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높은 마음챙김 기술을 갖춘 개인이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 발달 상태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김태원(2015)은 마음챙김 개입을 받은 집단이 진로 관련 대안의 탐색과 관여를 더욱 활발히 하였으며, 진로 관련 대안 자체의 질도 향상되었고, 비교 집단에 비해 높은 진로선택 만족도와 자신감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조승희와 최외선(2008)은 미술치료와 결합시킨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정체감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며 따라서 정체감이 통합된 사람은 마음챙김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높은 마음챙김 수준은 발달 단계에서 생기는 정체감 위기와 갈등을 보다 적절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정체감의 통합과 성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프로파일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마음챙김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진로정체감 지위(VISA)와 진로결정 프로파일의 결정-편안 군집의 분포는 어떠한 것인가?

연구문제 3.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마음챙김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수업시간을 통해 집단적으로 실시되거나 개인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5명을 제외한 총 30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이 202명(65.8%), 자연/공학 계열이 40명(13.0%), 경상 계열이 25명(8.1%), 예술/체육 계열이 35명(11.4%), 기타가 5명(1.6%)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 평가 모델(VISA)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Crocetti 등(2008)에 의해 개발되고 Porfeli 등(2011)에 의해 수정된 VISA 척도를 이보라 등(2014)이 수정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진로탐색, 관여, 관여의 재고려 3개 차원에 대해 각 10문항씩(각 차원의 두 가지 하위 척도마다 각 5개의 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차원은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탐색 차원은 깊은 탐색과 넓은 탐색으로, 관여 차원은 관여 형성과 관여와의 동일시로, 관여의 재고려 차원은 자기의심과 진로 유연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보라 등(2014)이 본 척도를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요인의 6개 구조가 한국인에게도 적합함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인에게서 나타난 진로정체감 지위가 한국인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차원들의 점수분포 특성에 따라 진로정체감 지위가 분류된다. 이보라 등(2014)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넓은탐색 .70, 깊은탐색 .73, 관여형성 .69, 관여동일시 .74, 자기의심의 .81, 진로유연성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8, .71, .75, .72, .78, .7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프로파일(CDP)

진로결정 프로파일은 Jones(1989)의 직업결정 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를 수정한 것으로, 김남순과 배종훈(2000)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16개로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남자	23(7.5)	22(7.2)	20(6.5)	36(11.7)	101(32.9)
여자	51(16.6)	38(12.4)	50(16.3)	67(21.8)	206(67.1)
전 체	74(24.1)	60(19.5)	70(22.8)	103(33.6)	307(100)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하위차원을 모두 사용하거나 결정성과 편안성을 중심으로 군집을 분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정성과 편안성이 높은 것은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고, 그에 대해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이유 차원의 점수가 높은 것은 진로미결정에 대한 이유로써 해당 차원이 진로미결정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남순과 배종훈(2000)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은 .75, 편안성 .81 이었고, 이유 차원 하위 요인의 신뢰도는 자기명료성 .77, 직업 훈련에 대한 지식 .61, 결단성 .67, 직업선택의 중요성 .6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결정성 .72, 편안성 .86 이었고, 자기명료성 .76, 직업 훈련에 대한 지식 .73, 결단성 .75, 직업선택의 중요성 .63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 척도

마음챙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등(2003)이 개발한 마음챙김 주의-자각 척도(MAAS)를 전종희, 이우경, 이수정, 이원혜(2007)가 우리나라 상황에 수정 보완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의와 자각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MAAS는 사람들이 현재 내적, 외적 현상들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자각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측정(예: 어떤 감정의 경우, 감정이 올라오고 나서 한참 후에야 그 감정을 의식할 수 있다)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 주의 자각 수준이 낮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역 채점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챙김 주의 자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일척도이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고 구성되어 있으며, 전종희 등(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인 진로정체감 지위의 하위요인들과 진로결정 프로파일의 결정성, 편안성 요인 그리고 마음챙김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넓은탐색은 깊은탐색, 결정성, 편안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회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깊은탐색은 관여형성, 관여동일시, 결정성, 편안성, 마음챙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회귀, 진로유연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관여형성은 관여동일시, 결정성, 편안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회귀, 진로유연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관여동일시는 결정성, 편안성, 마음챙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회귀, 진로유연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자기회귀는 진로유연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결정성, 편안성, 마음챙김과 유의미한

표 2.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관계

(N= 30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32**	1											
3	.05	.39**	1										
4	.15*	.38**	.51**	1									
5	-.20**	-.38**	-.42**	-.43**	1								
6	.06	-.15*	-.40**	-.32**	.35**	1							
7	.15*	.38**	.64**	.56**	-.40**	-.30**	1						
8	.13*	.26**	.42**	.40**	-.59**	-.23**	.42**	1					
9	.04	.02	-.27**	-.09	.27**	.28**	-.17*	-.30**	1				
10	.13*	.07	-.07	-.02	.15*	.21**	.05	-.16*	.55**	1			
11	-.27**	-.35**	-.35**	-.31**	.50**	.25**	-.30**	-.41**	.18*	.08	1		
12	.03	-.10	.02	.02	-.07	.10*	-.04	.29**	-.09	-.06	.10	1	
13	.10	.16**	.03	.12*	-.29**	-.06	.04	.21**	-.09	-.07	-.40**	-.02	1
M	3.23	3.62	3.17	3.57	2.88	3.12	3.89	2.64	4.13	4.09	2.84	2.47	2.80
SD	.73	.65	.79	.67	.85	.65	.84	1.13	.76	.75	.96	.83	.50

주. 1=넓은탐색, 2=깊은탐색, 3=관여형성, 4=관여동일시, 5=자기회의, 6=진로유연성, 7=결정성, 8=편안성, 9=자기명료성, 10=직업훈련지식, 11=결단성, 12=진로선택중요성, 13=마음챙김

* $p < .01$. ** $p < .001$.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자기유연성은 결정성, 편안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결정성과 편안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2.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집단 분류

VISA 모형의 6개 하위차원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6개 단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과 제곱 Euclidean 거리를 적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으로 적절한 군집의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6개의 군집으로 집단이 형성되도록 비계층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하면서 군집의 평균 중심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K-평균 군집분석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참가자가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된 6개의 단계는 Porfeli 등(2011)의 진로정체감 지위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하위 군집들이 유의미하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6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6개의 군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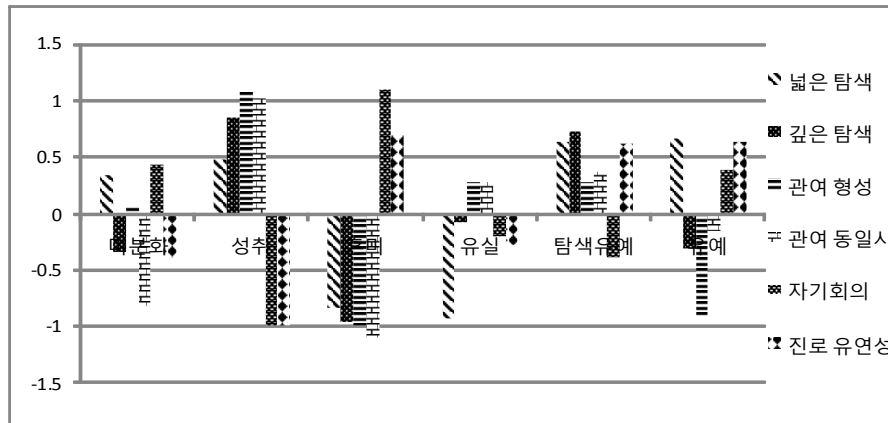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Z값 평균 그래프

표 3. 진로정체감 6개 지위의 Z점수 평균, 표준편차

M(SD)

	(명)	1.미분화 (39)	2. 성취 (69)	3. 혼미 (57)	4. 유실 (69)	5. 탐색유예 (46)	6. 유예 (57)	<i>F</i>	Scheffe
탐색	넓은탐색	.34(.61)	.47(.83)	-.84(.75)	-.93(.68)	.63(.71)	.65(.63)	63.48***	2>6, 5, 1>3, 4
	깊은탐색	-.33(.74)	.84(.76)	-.96(.78)	-.07(.85)	.72(.59)	-.31(.81)	46.13***	2, 5>4, 1, 6>3
관여	관여형성	.05(.48)	1.08(.70)	-1.00(.64)	.27(.64)	.27(.78)	-.91(.58)	91.98***	2>5, 4, 1>3, 6
	관여동일시	-.82(.68)	1.01(.67)	-1.11(.76)	.26(.51)	.36(.65)	-.16(.81)	76.82***	2>5, 4>6>1, 3
관여	자기회의	.43(.59)	-.99(.67)	1.09(.66)	-.20(.88)	-.39(.79)	.37(.64)	61.16***	3>6, 1>4, 5>2
재고려	진로유연성	-.39(.76)	-1.00(.69)	.69(.90)	-.28(.76)	.62(.64)	.63(.70)	52.76***	3, 6, 5>4, 1>2

*** $p < .001$.

표 4. 두 가지 다른 접근의 군집분석 결과 비교

(명)

		원 척도 군집분석						
		미분화	성취	혼미	유실	탐색유예	유예	전체
본 연구 군집분석	미분화	13	2	0	2	0	17	35
	성취	0	47	3	0	5	1	59
	혼미	0	2	43	1	9	0	55
	유실	7	4	4	44	0	2	60
	탐색유예	1	1	12	0	23	0	41
	유예	23	6	0	0	0	35	57
	전체	44	62	62	47	37	55	307

Cohen's Kappa = .599

표 5. 진로결정 상태 유형에 따른 CDP 하위 차원의 Z값 평균, 표준편차 (명)

	1.미결정- 불편(33)	2.미결정- 저불편(93)	3.결정- 불편(81)	4.결정- 편안(100)	F	Dunnett T3 / Scheffe
결정성	-1.82(.72)	-.45(.40)	.53(.56)	.70(.53)	262.22***	4, 3 > 2 > 1
편안성	-1.09(.47)	-.17(.53)	-.83(.45)	1.15(.55)	317.43***	4 > 2 > 3, 1
이유	자기명료성	.53(.73)	-.03(.94)	.17(.88)	8.14***	1, 3 > 2, 4
	직업훈련지식	.23(.84)	-.14(.93)	.25(.99)	3.99***	차이없음
	결단성	.55(1.00)	.12(.94)	.16(1.02)	14.98***	1, 3, 2 > 4
	선택중요성	-.34(1.08)	.24(.83)	-.41(.94)	12.73***	4, 2 > 1, 3

* $p < .05$. ** $p < .01$. *** $p < .001$.

차이검증 결과, 6개 지위 집단은 6개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판별분석 결과, 각 집단에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hit ratio)이 약 94.4%로 나타나 VISA의 6개 차원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6개 군집으로 유의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orfeli 등 (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원 척도 대상자의 각 군집별 평균값을 받아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와 일치도(Cohen's Kappa coefficient)를 확인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코헨의 카파계

수 값(두 평정자에 의한 일치도 확률)이 .598로 나타나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라 두 군집분석 결과의 일치도는 비교적 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CDP의 결정성과 편안성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유형 분석

Jones와 Chenery(1980)처럼 진로결정 프로파일의 결정성과 편안성에 따라 4개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Ward 방법과 제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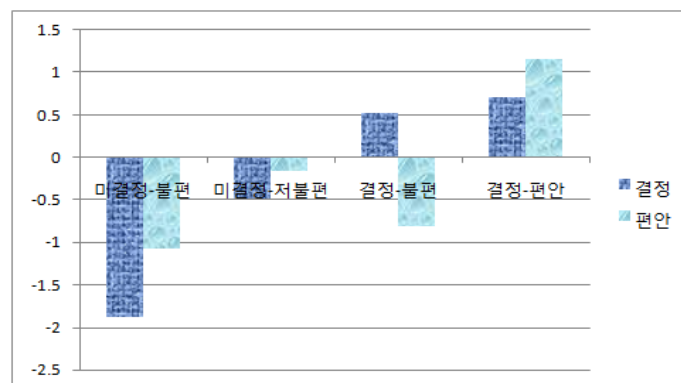


그림 2. 진로결정 상태 유형에 따른 Z값 평균 그래프

Euclidean 거리를 적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적절한 군집의 수를 4개로 선택하였다. 그 후 평균 중심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K-평균 군집분석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307명의 참가자가 4개의 군집으로 모두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군집이 유의미하게 구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성과 편안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4개의 군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에 정확하게 분류된 비율(hit ratio)이 100%로 매우 높은 예측율을 보여 결정성과 편안성을 기준으로 4개 진로결정 상태유형이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이 검증되는 것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고, 분산의 동질성이 검증되는 않은 것은 Dunnett T3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검증 결과, 4개 군집 유형은 결정성과 편안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를 표 5에 게시하였다. 분포를 살펴보면 3개의 군집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특성을 띠는 반면에, 미

결정-편안 집단이 나타나지 않고 미결정-저불편 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유형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 6개 지위와 진로결정 상태 유형 4개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포차이의 유의미성과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과 분할계수, Cramer V값을 확인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와 진로결정 상태 유형 간의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성취 지위는 유의미하게 결정-편안 유형이 많았으며, 미결정-편안과 미결정-불편 유형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유예 지위와 유실 지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미결정-고불편 유형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예지위는 다른 유형에 비해 결정-편안 유형

표 6.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유형 분포

명(%)

CDP 정체감 지위	미결정- 불편	미결정- 저불편	결정-불편	결정-편안	합계	분석결과	
미분화	2(0.7)	12(3.9)	15(4.9)	6(2.0)	35(11.4)	χ^2	147.23***
성취	0(0.0)	3(1.0)	12(3.9)	44(14.3)	59(19.2)	분할계수	.57
혼미	22(7.2)	25(8.1)	7(2.3)	1(0.3)	55(17.9)	Cramer	.40
유실	2(0.7)	21(6.8)	13(4.2)	24(7.8)	60(19.5)	v	
탐색유예	0(0.0)	13(4.2)	13(4.2)	15(4.9)	41(13.4)		
유예	10(3.3)	26(8.5)	15(4.9)	6(2.0)	57(18.6)		
합계	36(11.7)	100(32.6)	75(24.4)	96(31.3)	307(100)		

*** $p < .001$.

이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미분화 지위는 결정-불편 유형은 많고, 결정-편안 유형은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미지위는 미결정-고불편, 미결정-저불편 유형은 많고, 결정-불편과 결정-편안 유형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CDP)과 마음챙김의 차이

VISA의 6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과 마음챙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CDP

와 마음챙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성과 편안성은 성취 지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탐색유예 지위와 유실지위, 미분화 지위가 중간 정도의 점수를, 마지막으로 유예와 혼미지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기명료성 부족은 탐색유예, 혼미, 유예, 미분화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단성 부족은 혼미 지위가 가장 높았고, 유실, 미분화, 유예 지위가 중간 정도의 점수를, 탐색유예와 성취지위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직업훈련지식 부족과 진로선택 중요성 부족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마음챙김에서는 탐색유예 지위가 혼미 지위보다 유의

표 7 .진로정체감 6개 지위에 따른 CDP와 마음챙김에서의 차이

M(SD)

	1. 미분화 (35)	2. 성취 (59)	3. 유실 (55)	4. 탐색 유예 (60)	5. 유예 (41)	6. 혼미 (57)	<i>F</i>	Dunnett T3
결정성	3.82 (.60)	4.56 (.47)	4.08 (.69)	4.21 (.55)	3.57 (.80)	2.98 (.80)	40.96***	2>4, 1, 3>5>6
편안성	2.34 (.96)	3.59 (1.04)	2.80 (1.16)	2.88 (1.00)	2.19 (.86)	1.78 (.73)	25.70***	2>4, 3, 1>5, 6
자기 명료성	4.17 (.73)	3.77 (.89)	3.85 (.75)	4.36 (.50)	4.28 (.67)	4.31 (.73)	6.04***	4, 6, 5, 1>3, 2
훈련 지식	4.23 (.62)	3.78 (.85)	4.07 (.78)	4.13 (.88)	4.23 (.62)	4.01 (.67)	1.16	NS
결단성	2.94 (.61)	2.15 (.68)	2.98 (.82)	2.44 (.83)	2.91 (.97)	3.74 (.85)	26.91***	6>3, 1, 5>4>2
선택 중요성	2.46 (.78)	2.41 (.73)	2.57 (.79)	2.53 (.84)	2.40 (.90)	2.46 (.98)	.40	NS
마음챙김	2.73 (.46)	2.90 (.60)	2.81 (.45)	3.02 (.46)	2.77 (.54)	2.64 (.43)	3.35**	4 > 6

** $p < .01$. *** $p < .001$.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많은 연구들은 진로정체감 발달이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이끌어가는 중요 요인임을 밝혀왔다. 최근 들어 정체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Porfeli 등(2011)은 Marcia(1980)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여의 재고려라는 세 번째 차원을 추가하여 새로운 진로정체감 평가 방법인 VISA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모델(VISA)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분류하고, VISA 모형의 인지적·행동적 측면만을 주로 고려하는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진로정체감의 정서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을 사용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마음챙김의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근래에 진로 상담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마음챙김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지를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VISA 척도를 사용하여 국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가 Porfeli 등(2011)의 6개의 진로정체감 지위로 분류되는가를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도 6개의 군집-성취, 탐색유예, 유예, 유실, 혼미, 미분화-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ISA 모형은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방식인데(이상희, 정지후, 2015; Crocetti et al., 2008), 이는 기존의 유예지위를 적응적 유예와 부적응적 유예 지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적응적 유예의 모습인 탐색유예 지위는 높은 수준의 넓은 탐색과 깊은 탐색, 높은 관여 동일시와 관여 형성, 그리고 높은 진로유연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Porfeli 등(2011)의 연구에서처럼 성취지위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탐색유예 지위를 성취지위와 유예지위 사이를 이동하며 발달 중인 개인으로 이해할 때, 우리나라 탐색유예 지위의 대학생들은 유예지위보다는 성취지위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탐색유예 지위의 대학생들은 진로유연성이 높으며 Porfeli 등(2011)의 연구 대상에 비해 자기회외가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탐색유예 지위의 개인은 안정적인 기초에서 새로운 탐색을 하는 유연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Crocetti 등(2008)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회외의 차원은 관여의 재고려 차원 중 부정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탐색유예 지위의 대학생들의 낮은 자기회외의 점수는 결정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심이나 걱정이 적은 긍정적인 특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탐색유예 지위의 낮은 자기회외나 높은 진로유연성은 직업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특히 유리한 특성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Marcia의 진로정체감 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탐색유예지위의 새로운 발견은 진로정체감 연구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으며, 오늘날

좀 더 유용한 진로정체감 분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VISA 모형은 진로정체감 지위 및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체감 연구의 확장과 심도 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진로정체감은 적응과 정서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연구결과와 진로정체감에서 정서적 측면의 설명력이 인지·행동적 요인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으나(김신정, 김성희, 2012), 최근까지도 진로정체감 연구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ISA 척도와 진로결정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결정성 수준과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은 결정성과 편안성을 기준으로 할 때, '결정-편안', '결정-불편', '미결정-편안', '미결정-불편'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류된 유형은 기존의 결과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미결정-편안 유형이 나타나지 않고 '미결정-저불편' 유형이 발견되었다. 이는 과거 Zytowski(1978)나 Lucas와 Epperson(1990)이 '미결정-낮은 불안' 유형과 '미결정-높은 불안' 유형으로 미결정 유형을 분류해냈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유형 간의 차이인데, 특히 결정-불편 유형의 경우 진로를 결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결정-저불편 유형보다 불편 점수가 높은 편이었으며, 심지어 미결정-고불편 유형만큼이나 높은 불편 수

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Lucas와 Epperson(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로를 결정했지만 딜레마에 빠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 결정성과 편안성이 항상 함께 동반되는 특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미결정-편안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 보면, 기존처럼 평균값을 중심으로 한 임의적 집단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군집의 평균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K-평균 군집분석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나, 혹은 진로 미결정 상태에서 높은 정서적 편안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미결정-저불편 유형이 기존의 미결정-편안 유형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불안한 고용시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상태유형이 본 연구의 결과처럼 편안보다는 불편 위주로 재편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계속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와 진로결정 상태유형의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진로정체감 지위(VISA)에 따른 진로발달 수준을 확인한 국내 연구들은 일괄적으로 성취지위가 가장 성숙한 단계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유실 지위가 유예나 탐색유예 지위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상희, 오보영, 2014). 유실지위가 성취지위와 비슷한 진로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국내 결과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진로결정이 탐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며 일단 진로가 결정된 상태일 때 개인이 느끼는 진로 안정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예지위는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며, 특히 탐색유예는 적응적 유예지위이기 때문에 진로발달상 높은 수준의 지위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상태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진로 발달 단계인 성취 지위는 유의미하게 결정-편안 유형이 많았으며, 미결정-편안과 미결정-불편 유형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색유예와 유예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탐색유예 지위는 유실 지위와 동일하게 다른 유형에 비해 미결정-고불편 유형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예지위는 다른 유형에 비해 결정-편안 유형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탐색유예 지위는 유실 지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진로결정 상태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유예지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유예의 진로발달 수준이 유실지위보다 낮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여 주며 이는 진로정체감 단계에 따른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을 사용하여 기존에 소홀히 취급되어온 정서적 측면의 설명을 보강할 수 있고, 진로결정수준과 상태의 유형화를 통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특성의 이해에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진로정체감지위에 따라 진로결정 프로파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결정 프로파일과 마음챙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프로파일 중 결정성과 편안성 모두에서 성취 지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탐색유예 지위와 유실지위, 미분화 지위가 중간 정도의 점수를, 마지막으로 유예와 혼미지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 발달 단계가 혼미, 유실, 유예, 성취의 순서로 발달해 나간다고 제안하였으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이를 입증하지 않는 결과가 발견되어 왔다(Adams & Fitch, 1982). 연구결과들에서 성취지위는 모든 정체감지위 중 가장 발달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나 유예지위는 혼미 지위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Crocetti et al.,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예를 탐색유예와 유예지위로 나누어 분류함으로써, 유예 내에서 정체감 수준이 높은 탐색유예 지위와 정체감 수준이 낮은 유예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서유란과 이상희(2012)는 탐색유예 지위는 유예 지위와는 다른 집단으로 유실과 비슷한 수준의 진로태도성숙을 갖고 있으며, 건강한 유예집단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탐색유예 지위는 성취지위 다음으로 높은 결정성과 편안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존의 유예 지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성취, 유실, 탐색유예 지위는 진로정체감 지위 내에서 높은 수준의 진

로정체감 발달 지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VISA 모델을 사용한 분류방식을 통하여 진로정체감 지위에 대해 보다 적절한 설명력과 정보를 갖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의 진로미결정 이유차원인 자기명료성 부족은 탐색유예, 혼미, 유예, 미분화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단성 부족은 혼미 지위가 가장 높았고, 유실, 미분화, 유예 지위가 중간정도의 점수를, 탐색유예와 성취지위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직업훈련지식 부족과 진로선택 중요성 부족에서는 진로정체감 지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중 흥미로운 점은 자기명료성 부족에서 탐색유예 지위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자기 명료성은 자신의 장점이나 흥미, 적성, 약점, 성격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명료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탐색유예 지위의 대학생들이 성취지위나 유실지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Crocetti 등(2008)은 관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깊은 탐색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의 관여에 대해서 수정하고 변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여 재고려 차원의 유용성을 언급하였다(Crocetti et al., 2008). 탐색유예 지위는 진로 발달선상에 위치하는 개인을 반영하며 과거에 성취지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고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Crocetti et al., 2008). 즉, 탐색유예 지위의 개인은 성취지위와 유예지위 사이의 중간적 특성을 나타내며 진로정체감 유예에서 성

취로 발달 중이거나 진로정체감 성취에서 진로결정을 수정하기 위해 유예지위로 돌아가 재고려를 하는 개인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탐색유예의 특성상 결정된 진로에 대해 수정하거나 고려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명료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이것이 본 연구에서 자기명료성 부족의 특성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취업시장의 높은 벽은 대학생들에게 충분히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으며, 빨리 진로를 결정하여 미리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진로탐색을 거치지 않고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미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 중에도 충분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진로를 결정하였어도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닌 대상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 특성들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개별적인 진로상담 개입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마음챙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에서는 탐색유예 지위가 혼미 지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취지위 또한 높은 마음챙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챙김이 삶의 다양한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탐색유예 지위의 마음챙김이 성취지위나 유실지위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챙김이 현대 사회의 불확실한 진로 및 직업 상황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의 진로 결정이라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에 효과적인 개인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높은 마음챙김 기술을 갖춘 개인은 높은 진로발달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유예 지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성취지위보다 진로유연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진로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마음챙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진로유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본 연구를 통해서 그 관련성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나 탐색유예 지위의 마음챙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아직까지 마음챙김을 진로나 직업 상황과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마음챙김을 살펴본 점, 그리고 그 결과 탐색유예 지위의 높은 마음챙김 수준이 확인된 점 등은 미래의 진로연구 주제를 확장시켜 주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대학생들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와 다양한 지방

대학 등의 다양한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6개 차원을 준거로 사용한 진로정체감 지위(VISA) 분류는 기존 Marcia 방식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탐색유예 지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특성 확인 연구가 추후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6개 차원을 준거로 사용한 분류방법은 주로 유예와 성취지위 사이의 발달 순환적인 개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진로정체감 지위에서 일어나는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다른 진로정체감 지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달 경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진로정체감 연구에서 인지·행동만이 아니라 정서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사실 정체감은 과정, 구조, 기능, 맥락 그리고 내용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호의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체감 분류 방법이 정체감의 다각적 차원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소개되는 정체감 접근 방식들과의 상호보완 및 비교를 통한 지속적인 학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순, 배종훈 (2000). 진로결정검사(CDP)의

- 표준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4(3), 83-98.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신정,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3), 1425-1441.
- 김태원 (2015). 진로선택과정에서 사회인지적 마음챙김과 상향비교개입이 선택행동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숙 (2009). 청소년의 정체감 연구를 위한 소고. *교육심리연구*, 23(4), 819-838.
- 배종훈 (2000). 진로 미결정 유형별 진로 결정변인과 성격특성의 차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숙 (2007).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 진로성숙도와 대학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0.
-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 양승권 (2004).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 이상희, 오보영 (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4단계와 6 단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59-480.
- 이상희, 정지후 (2015).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단계(VISA),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비교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143-165.
- 장선철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 전종희, 이우경, 이수정, 이원혜 (2007). 한국판 마음챙김 주의 자각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01-212.
- 조승희, 최외선 (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마음챙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미술치료연구*, 15(2), 317-338.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ti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74-583.
- Blustein, D. L., & Phillips, S. D. (1990). Relation between ego identity statuses and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160-168.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22.
- Brown, K. W., Ryan, R. M., & Creswell, J. D. (2007). Mindfulnes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vidence for its salutary effects. *Psychological Inquiry*, 18(4), 211-237.
- Carson, S. H., & Langer, E. J.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Crocetti, E., Rubini, M., Luyckx, K., & Meeus, W.

- (2008).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from various ethnic groups: From three dimensions to five statu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83-996.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 New York: Int. Univ. Press.
- Glomb, T. M., Duffy, M. K., Bono, J. E., & Yang, T. (2011). Mindfulness at work.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30, 115-157.
- Herr, E. L. (2003). The future of career counseling as an instrument of public polic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1), 8-17.
- Jacobs, S. J., & Blustein, D. L. (2008). Mindfulness as a coping mechanism for employment uncertain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2), 174-180.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486.
-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469.
- Kiken, L. G., & Shook, N. J. (2011). Looking up: Mindfulness increases positive judgments and reduces negativity bia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4), 425-431.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159-174.
- Lucas, M. S., & Epperson, D. L.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82-388.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Beyers, W., & Vansteenkiste, M. (2005). Identity statuses based on 4 rather than 2 identity dimensions: Extending and refining Marcia's paradig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05-618.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11), 159-187.
- Mauer, E. B., & Gysbers, N. C. (1990). Identifying career concerns of entering university freshmen using My Vocational Situa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2), 155-165.
- Meeus, W. (2011). The study of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2000-2010: A review of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75-94.
- Ostafin, B. D., & Kassman, K. T. (2012). Stepping out of history: Mindfulness improves insight problem solving. *Consciousness and*

- Cognition*, 21(2), 1031-1036.
- Papies, E. K., Barsalou, L. W., & Custers, R. (2012). Mindful attention prevents mindless impuls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3), 291-299.
-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 Savickas, M. L. (2003). Advancing the career counseling profession: Obj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next decad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1), 87-96.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einstein, N., Brown, K. W., & Ryan, R. M. (2009).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mindfulness on stress attribution, coping, and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374-385.
- Zytowski, D. G. (1978). Review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Eigh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2, 1565-1567.

1 차원고접수 : 2016. 04. 11.
수정원고접수 : 2016. 05. 15.
최종게재결정 : 2016. 06. 02.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Profile and Mindfulness with regard to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Sim, Hui-Jun

Lee, Sang-Hee

Dep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six statuses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VISA) model,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Career Decision Profile (CDP) and mindfulness. A total of 307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could be divided into six types based on VISA. The features of each vocational identity status were nearly identical to those in the results of Porfeli et al(2011). Second, the career-decision/emotional statuses of college students could be divided into four types based on CDP.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ies between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and career-decision/emotional statuses. Fourth, the results of CDP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In addition, mindfulness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ir vocational identity status. Individuals with the searching moratorium status had the highest scores for mindfulness.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and provided helpful tips for designing the effective strategies of career counseling.

Keywords: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Career Decision Profile, mindfulness, searching moratorium